

# 최민식·송강호 “K드라마서 흥행 이끈다”

최민식, 24년 만에 드라마 나들이 디즈니+ '카지노'서 손석규와 호흡 송강호, 첫 드라마 '삼식이 삼촌' 픽 한국 드라마 큰 파급력에 안방으로

톱스타 최민식과 송강호가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비상을 노린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얼굴로 꼽히는 최민식과 송강호는 '카지노'와 '삼식이 삼촌'으로 각각 24년, 31년 만에 드라마 주연으로 나선다. 최근 주연 영화의 흥행 실패를 맞본 터라 안방극장에서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 ● 기대감과 자신감의 새 무대

최민식은 1998년 '사랑과 이별' 이후 2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올해 하반기 OTT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로,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으로 군림하지만 잇단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선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새롭게 드라마에 나서는 그는 영화 '범죄도시2'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대세'로 떠오른 손석규와 호흡을 맞춰 또 다른 기대를 모은다. 손석규는 최민식을 쫓는 필리핀 파견 경찰을 연기한다. 기대에 부응하듯 15일 유튜브 브이 공개된 드라마 예고 영상은 12일 만에 94만 뷰를 기록했다.

1990년 연기를 시작한 이래 영화만 고집해온 송강호도 최근 1960년대를 배



배우 최민식과 송강호(왼쪽부터)가 연말 각각 드라마 '카지노'와 '삼식이 삼촌'을 내놓으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안방극장에 도전한다.



경으로 격동의 시대를 그리는 '삼식이 삼촌'으로 첫 드라마 출연을 확정했다. 두 남자의 욕망과 브로맨스를 다룬 10부

작 드라마에서 그는 주인공 삼식이 역을 맡는다. 송강호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배역이 정해지는 대로 촬영을 시작할 예

정이다. 자신과 손발을 맞출 연기자 라인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드라마를 새로운 무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송강호의 자신감을 엿보게 한다.

### ● "영화만 고집할 수 없는 산업의 변화"

스크린 베테랑으로 꼽히는 최민식과 송강호의 선택은 단순한 드라마 출연 결정이 일으키는 화제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의 행보는 달라진 드라마 제작 환경과 글로벌 위상을 대변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방송·영화관계자들은 '오징어게임' 등 케이(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진 것을 큰 배경으로 꼽는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7일 "영화만 찾던 배우들도 더 이상 드라마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가 보여준 엄청난 화제성과 파급력과 글로벌 흥행이 주로 스크린에서 활약해온 톱스타급 배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진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대체로 16부작인 방송 미니시리즈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작업보다는 더 압축적이면서도 표현의 제약을 덜 받는 OTT 오리지널 시리즈가 스크린 스타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라고 한 매니저먼트사 관계자는 밝혔다. '카지노'의 최민식이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삼식이 삼촌'의 송강호가 새 주연 영화 '1승'의 신연식 감독과 각각 손잡은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돈스파이크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45)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996년 밴드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한 돈스파이크는 최근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6월 6세 연하의 비연연인과 결혼했다.

### 마마무, 내달 새 앨범...1년 만에 완전체로



마마무

4인조 걸그룹 마마무가 1년 만에 팀 활동을 펼친다. 소속사 RBW는 "마마무가 10월 11일 열두 번째 미니앨범 '마이크 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룹으로서 새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해 9월 데뷔 7주년을 기념한 베스트 음반 '아이 세이 마마무: 더 베스트' 이후 1년 만이다. 마마무는 2014년 '미스터 에매호호'로 데뷔한 후 '파이노 맨', '음오아에', '데칼코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멤버 솔라·문별·화사는 현재 소속사인 RBW와 재계약했고, 휘인은 더라이브레이블로 소속사를 옮겼으나 그룹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4인조 걸그룹 마마무가 1년 만에 팀 활동을 펼친다. 소속사 RBW는 "마마무가 10월 11일 열두 번째 미니앨범 '마이크 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룹으로서 새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해 9월 데뷔 7주년을 기념한 베스트 음반 '아이 세이 마마무: 더 베스트' 이후 1년 만이다. 마마무는 2014년 '미스터 에매호호'로 데뷔한 후 '파이노 맨', '음오아에', '데칼코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멤버 솔라·문별·화사는 현재 소속사인 RBW와 재계약했고, 휘인은 더라이브레이블로 소속사를 옮겼으나 그룹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하이라이트' 출신 용준형, 4년 만에 새 앨범



용준형

그룹 하이라이트 출신 가수 용준형이 4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27일 용준형 측에 따르면 그는 곧 내놓을 새 앨범의 막바지 작업 중이다. 독립 레이블을 통해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준형은 2009년 6인조 그룹 비스트의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16년 멤버 장현성이 팀을 탈퇴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독립 레이블 어라운드어스를 차리면서 팀 이름을 하이라이트로 바꿨다. 솔로곡 '너 없이 사는 것도' 등을 프로듀싱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가수 정준영이 과거 공유한 불법 동영상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팀을 탈퇴했다.

### 방심위, 과도한 PPL한 SBS '런닝맨'에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SBS '런닝맨' 등 5편의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런닝맨'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연자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시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해 주의를 받았다. 5월 종영한 JTBC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도 주의를 받았다.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해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 가수 김재중 첫 에세이 '스페이스 서울' 발간



김재중 '스페이스 서울'

가수 김재중이 첫 번째 에세이를 내놓는다. 27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0월 11일 김재중의 일상과 단상이 담긴 에세이 '김재중 스페이스 서울'이 발간된다"고 밝혔다. 책에는 김재중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를 통해 13일 약 6년 만에 발매된 정규 앨범 '본 진'의 작업기부터 아시아 투어까지 다양한 일상을 공개한다. 소속사는 "김재중이 국내외를 넘나드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에세이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책은 28일 예약 판매를 시작해 내달 11일 발간된다.

## 트로트 오디션 '섭외 경쟁' 과열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트롯2' 등 같은 포맷 많아 실력자 찾기 난감 "또 오디션?" 시청자들 피로감도

"뭘을 여러 개로 쪼갤 수도 없고, 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최근 동시다발로 제작되면서 섭외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다. 연말 방송하는 MBN '불타는 트롯맨', TV조선 '미스터트롯2' 등이 출연자 확보를 위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일부 트로트 가수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관련 포

맷의 재생산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로를 우려하는 시선도 커진다.

이들 제작진은 현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예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방송 녹화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폭 넓은 출연자를 찾기 위해 이달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많은 신인급 가수들에게도 오디션 참가를 권하고 있다.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지만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다진 지원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난감한 속내를 토로하는 가수들



MBN '불타는 트롯맨' (왼쪽)과 TV조선 '미스터트롯2'가 나란히 방송하면서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사진은 두 프로그램의 포스터. 사진제공 | MBN-TV조선

과 소속사도 늘고 있다. 27일 한 소속사 관계자는 "방송사 눈치가 보여 어느 한쪽에만 지원하기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소속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임영웅, 송가인, 김호중, 정동원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도 심사위원 등으로 동시에 섭외를 받은 후 출연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인פק에서는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커진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오디션 포맷의 핵심은 가능성과 실력을 갖춘 참가자 확보 여부인데 같은 포맷이 앞서 여러 차례 방영하며 이미 인력 풀이 소진됐다"면서 "이마저도 한데 모이지 못하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출연자가 갈려 포맷의 매력을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별다른 포맷 변화 없이 소재를 빠르게 소비해 '재잘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블랙핑크 '셋다운' 빌보드 싱글차트 25위로 진입

K팝 걸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 '글로벌' '글로벌200' 차트선 1위 빌보드 "이례적인 대성과" 극찬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200' 정상에 오른 블랙핑크가 싱글 차트 '핫100'에서는 25위로 진입했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의 타이틀곡 '셋 다운'(S hut Dow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10월 1일자)에 25위로 올랐다. 빌보드는 "이번 주간 차트에서 첫 데뷔(진입)한 곡 중 가장 높은 순위"라고 밝혔다. 1위는 15주째 그룹 윈 디렉션 출신 해리 스타일스 '애즈 잇 워스'가 차지했다.

'핫100'은 '빌보드200'과 함께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힌다. 실물 싱글 음반과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수치, 유튜브 조회 수 등

을 합산해 집계한다. 단순히 앨범 판매량만 높아져도 안 되고, 실제 미국에서 많이 재생돼야 차트에 오를 수 있다. 통상 빌보드 집계 차트들 중 가장 진입이 힘든 차트로 평가된다.

케이팝 가수 가운데 '빌보드200'과 '핫 100' 1위 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건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앞서 블랙핑크는 '셋 다운'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일주일간 3918만6127회 스트리밍되며 케이팝 최초로 '위클리 톱 송'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핫100' 상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0위권 내 진입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만 케이팝 가수 가운데 방탄소년단(1위), 싸이(2위)에 이어 세 번째 높은 기록을 보유해왔다. 앨범 수록곡이자 지난달 19일 선공개한 '핑크 베놈'으로 당시 22위를 기록했다.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으로는 13위까지 기록했다. 이 차트에서 케이팝 걸그룹 가운데 가장



걸그룹 블랙핑크가 27일(한국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25위로 진입했다. 전날에는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앨범 차트 '빌보드200' 1위에 올랐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높은 순위였다.

'셋 다운'은 또 다른 차트인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빌보드 글로벌200' 차트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핑크 베놈'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과 '빌보드 글로벌200' 차트 각각 2위에 올랐다.

'빌보드 글로벌200' 차트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것은 여성 아티스트를 포함해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빌보드는 "블랙핑크가 이례적인 대성과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